

■ 주제강연 4

임성빈(장신대 총장)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신학과 교회의 과제와 방향

21세기 한민족의 최대 과제이자 우선적 과제는 역시 통일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각별히 우리의 삶으로 평화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동족 간에 막대한 피를 흘리는 전쟁까지 치른 후에 상당한 적대감 속에서 반세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내온 만큼 커진 사회문화적이고 정치경제적인 이질감,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관과 민족관은 극복되어야 할 큰 걸림돌이자 과제들이다. 그러므로 진정 평화를 담보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걸림돌들의 극복에 집중하여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준비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평화통일의 날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과제 수행에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통일을 가로막는 반평화적 상황

피를 흘리는 전쟁을 치른 이후 격화된 남과 북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갈등 상황은 우리에게 평화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평화 주창이 반체제적 행위가 될 수도 있었던 안보 현실은, 평화를 이상주의적 이념으로 여기는 체념적 사회문화를 만들기도 하였다. 즉, 냉전시대에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은 안보의식과 반공의식을 내면화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평화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문화에 순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문화에 획일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분단 상황에 대한 이해도 다양해지고, 분단이 고착화된 사회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대 간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 인식의 차이가 생겨나고 향유하는 문화가 달라지면서 사회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로 구분된다. ‘산업화세대’는 근대화 시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세대로, 현재 50대 후반 이상에 해당한다. ‘민주화세대’는 권위주의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세대로 한때 30대와 40대를 일컫는 말이었으나, 이제 민주화 세대 중에는 오십대 중반에 가까운 사람도 있다. “정보화세대”는 20대와 30대를 가리킨다.

‘산업화 세대’는 “6.25, 4.19, 5.16 등의 국가적 대사건을 몸소 체험한 세대로서, 성장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고민한 세대요, 가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세대이자, 기성세대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기 시작한 세대인 동시에, 97년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 은퇴압력에 직면한 세대요, 열심히 일하고도 고령화 대비에 취약한 세대이자 정보화 및 세계화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지 못한 세대”다. 한편 ‘민주화 세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동조해온 세대로서,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 활동을 경험한 세대요, 한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세대이자, 개인적 욕구와 공동체적 가치 사이에서 고민해온 세대요, 경제적 풍요와 외환위기를 동시에 체험한 세대이고, 2002년 대선 이후 사회적 중심세력으로 떠오른 세대이자, 고용불안과 자녀 교육으로 시달리는 세대”다. 한편, ‘정보화 세대’는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으로 정보환경에 친숙한 세대로서,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결실을 동시에 향유한 세대이자, 정치 경제적 이념보다 문화 코드로

동질감을 느끼는 세대요, 한국적 가치규범 대신 세계적 기준을 중시하는 세대이며, 생존문제를 넘어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세대이나, 고조되는 청년 실업의 직접적 피해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¹⁾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모든 세대는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계심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분단현실과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통일이 공동의 과제라는 데는 동의했지만, 통일을 민족의 숙원이자 당위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있는 반면에, 경제적인 필요와 국가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세대가 있다. 과거 한국 사회의 지배와 저항구도의 중심축이 되었던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탈근대적인 사조들이 이입되는 시대에, 젊은 세대는 민족이나 통일에 대한 담론들을 일상사와는 동떨어진 거대 담론으로 치부하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로 현실적인 중압감을 느끼는 세대에게 평화와 통일은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인기 없는 주제다. 평화에 대한 관점도 세대마다 다르다. 예컨대 60대 이상의 세대는 반공주의적 평화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386세대가 주요 구성원인 4-50대는 상대적으로 반공주의보다는 민족주의적 평화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30대는 탈이데올로기적이면서도 개인주의적, 탈권위주의적 평화관을 선호한다. 이들에게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이나 민족주의적 갈등보다 더 우선적인 과제가 있다. 물질주의가 심화되고 경쟁문화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그들은 실존적 차원에서의 반평화적 현실과 직면하고 있다고 하겠다.

반평화적 현실, 사회갈등과 신앙인들의 과제

오늘날 교회가 과연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평화적 과제의 다양성과 방법론의 차이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교회 안의 현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 지도층은 냉전시대를 체험한 세대다. 평생 동안 반공을 학습한 세대는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정당 전쟁론을 옹립하는 평화관을 지니고 있다. 이런 세대가 탈이데올로기적인 평화주의에 관심을 가지는 다음 세대들을 평화 만들기의 여정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실 오늘 반평화적 현실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은 심각하다.²⁾ 예전에는 좌우의 이념적 갈등과 계층 간 갈등, 지역 갈등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는 세계관 갈등과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가속화되는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는데, 한국 사회는 저성장체제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사회적 역동성이 저하됨에 따라서 계층이나 신분상승도 어려워졌고, ‘헬조선’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마저 등장하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한국은 남북 분단이라는 고착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은 우리 사회의 생존과 정통성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원인이며, 또한 우리의 갈등이 국내적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게 해 주는 근본적 과제다.

1) 김문조, “한국 세대담론의 심화를 위한 소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 대회 논문집 (2004.12), pp.47-48.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갈등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1.043으로 터키(2.940), 그리스(1.712), 칠레(1.212), 이탈리아(1.119)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한 조사 대상 국가 24개국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관리지수(0.380)도, 조사대상 34개국 중에서 27위로 하위권이었으며, 하위권에 속하는 일본(0.569)와 미국(0.546)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정영호, 고숙자, “사회갈등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26-3), pp.74-78.

사회 갈등의 심화라는 반평화적인 현실은, 사회 안에 화해와 평화를 인기 있는 주제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말들이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될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와 평화의 개념이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대중적인 구호나 표어를 넘어서는 화해와 평화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함께 화해와 평화의 비전을 지속시키고 이를 사회 안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그러한 삶을 담보하는 사회 구조를 세우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¹⁾

갈등의 사회 안에서 교회가 “평화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은 그 신실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과의 이해와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다.”²⁾ 원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평화의 사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고린도후서 5:17).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들의 공동체, 즉 교회는 평화를 위한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고 사명을 다해야 한다. 성경이 증거하는 평화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표식이 바로 평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평화 만들기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단지 그것이 시대적인 요구이기 때문이 아니다. 평화 만들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이기 때문이다.”³⁾

평화의 초월적 토대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인의 평화 만들기의 기초는 하나님이다.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사상들과 구별되면서 또한 세속적 세계관 및 가치관들에 대하여 근본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초를 두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초월성과 보편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유한한 우리 인간들과 역사적 관계를 맺으신다. 일반 사상과 이념들 속에서도 신념의 체계 및 그것에 대한 신뢰와 충성으로서의 신앙(“faith in god”)을 논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신뢰와 충성을 헌신할 하나님(God of faith)⁴⁾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한다.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며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에게 토대를 두는 신앙이다. 이것은 인간들이 각고의 사유를 통해 상상한 미지의 이념이나 이상과는 다르다. 이렇게 기독교는 초월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 만들기를 위한 여정에서 한국교회의 주요 과제는 신앙의 사유화(privatization)⁵⁾의 극복, 즉 신앙과 삶의 이원화 극복이다. 그러나 신앙과 삶의 이원화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동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맺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 즉 신앙의 성숙함과 상관관계를 이룬다. 한 사람의 신앙,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그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1) 에마뉘엘 카통골레, 크리스 라이스, 안정희 옮김, 『화해의 제자도』 (서울 : IVP, 2013), p.33.

2) 볼프강 후버, 채수일 옮김, 『진리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투쟁』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91), p.118.

3) 같은 책, p.8.

4) H.R. Niebuhr, *Radical Monotheism and Western Civilization*(Lincoln, Nebraska: The University of Nebraska, 1960), p.3.

5) 참고. Peter Berger,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Garden City, N.Y.: Doubleday, 1967), p.133. 맥과이어, *종교사회학*(서울: 민족사, 1994), p.401에서 재인용. 종교사회학적 의미에서 사유화는 세속화로 인하여 야기된 “분화된 어떤 제도영역들(예컨대 종교, 가족, 레저, 예술)이 지배적인 공적 영역(예컨대 정치적, 경제적, 법적)의 제도들로부터 격리되어 사적영역으로 퇴행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격리는 사적 영역의 규범과 가치가 공적 영역의 제도들의 운용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사유화’와 ‘신앙과 삶의 이원화’는 동의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기 때문이다.

고백하는가, 즉 그의 하나님 이해(神論)에 의하여 그 성격이 규정된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는 곧 신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부족과 철저하지 않은 신앙고백은 곧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 즉 근본적인 윤리적 기준을 찾으려는 시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하나님의 존재양식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양식인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을 닮겠다는 노력은 한계에 직면한다. 오늘날, 다수의 신앙인들은 윤리적 행위의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추론하지 못하고 세속사회가 제시한 규범과 관례에 의존한다. 한편 일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그릇된 방식으로 이해한 뒤에 자의적인 원칙과 규범을 고수하려 든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진다. 백인 예수, 백인 하나님을 근거로 흑백 차별을 정당화하였던 신학이나, 남성으로서 하나님을 전제하는 가부장적 신학과 윤리도 이러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역사상 정치제도와 교회직제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적 정치를 펴면서 하나님의 존재양식에서 그 기원과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던 선례들도 있다.⁶⁾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심에 주목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와 이 세상과의 관계하심, 즉 경륜에 대한 강조는 피조물들 사이의 일치와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교제, 즉 평화로운 삶과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존재양식의 토대이자 소망이다. 특별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성령의 적극적 사역이다. “성령의 교제(koinonia)는 성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체의 몇몇 만이 아닌 모든 지체들에 대한 섬김(diakonia)으로 인도하는 것이다.”⁷⁾ “삼위일체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조화와 교제를 이루며 함께 살아감”⁸⁾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인의 삶은 영광과 교제를 기준으로 하는 바른 행함(orthopraxis)을 뜻한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어떠한 존재며 또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이해하게 하는 규범적인 기독교인의 표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A doxological and trinitarian) 하나님 이해, 즉 삼위일체적 신론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인다운 삶,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기초다.⁹⁾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신앙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은 다른 만물들을 힘으로 억압하시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힘과 삶을 나눔으로써 공동체를 이루려 하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능력(power)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창조적이며, 희생적이며, 다른 이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는 사랑(empowering love)이다.”¹⁰⁾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의 심연적 문법(the depth grammar of the doctrine of Trinity)”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자기 나눔(self-sharing), 이웃 돌보기(other-regarding),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랑(community-forming love)”¹¹⁾이 그것들이다.

6) Jurgen Moltmann, *The Trinity and the Kingdom*(San Francisco:Harper & Row, Publishers, 1981), pp.191-209.

7) *Ibid.*, pp.299-300.

8) *Ibid.*, pp.400-401.

9) *Ibid.*, p.408.

10) D.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Grand Rapids, Michigan: Wm.B. Eerdmans Publishing Co., 1991), p.63.

11) *Ibid.*, p.64.

평화 만들기를 위한 성경-신학적 관점에서의 토대

이렇게 삼위일체 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본성은 평화를 이루는 존재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이끄신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평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누구나 동의하지만 앞에서 살핀 것처럼 역사적, 사회적 경험의 차이에 따라 평화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토대로 평화 만들기의 여정에 동기와 내용과 목표를 제공하는 신학적 주제들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 은혜

평화에 대한 논의가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비롯되는가, 아니면 신앙과는 별개영역으로, 심지어는 우리 신앙과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가? 우리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죄가 발견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로 신앙적 삶을 표현하는 기회가 있는가를 은혜의 관점에서 물어야 한다. 신앙적 삶이란 사랑과 정의와 이웃을 향한 섬김을 뜻하며,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하여 평화로의 여정에 동참한다.

이러한 은혜의 관점은 평화에 대한 논의가 세상 문화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심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인식하도록 이끈다. 그러므로 신학적 평화 만들기는 자기중심성과 특정 당파성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2)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창세기 1:26)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존엄성은 기독교적 평화관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나님의 형상(*Imago Dei*)대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우리는 많은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받았다. 인간이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인 존엄성을 갖고 태어났음을 주장하는 신성한 증거가 된다. 인간 생명의 신성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하여 주기도 한다. 모든 인간관계는 각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야 하며, 적어도 타인의 존엄성이나 우리 자신의 그것을 해치거나 축소시키는 것을 의도해서는 안 된다.¹²⁾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나 개인이 지닌 구매력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은 신뢰사회 형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 평화관을 합의하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랑과 정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

12)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1.* (NewYork: Scribner, 1949), pp.150-166.

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 (마태복음 22:36-40)

만약 신앙인의 소명이 이웃과 공동체-인간과 비인간의 세계를 포괄하는-를 섬기는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면, 사랑과 정의는 기독교적 평화를 구현하는 방식이자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문화 한 가운데에서 사랑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랑의 전형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기심을 극복한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전형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포기하면서까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삶이었다. 그 사랑이 품는 영역은 무한하게 넓고 또한 무조건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악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긍휼을 나타내고 그의 사랑을 선포했다. 그의 삶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반영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한 자기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사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입증되었다.¹³⁾

그러나 이런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 삶에서도 구체화될 수 있을까? 라인홀드 니버와 같은 이른바 기독교 현실주의자들은 매우 왜곡된 사회 구조 안에서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directly)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은 이웃의 유익을 구함이 사랑의 목적이기에 정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indirectly) 그 영향력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조건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모색하는 정의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⁴⁾ ‘실재’의 세계에서 사랑은 죄와 악, 또한 상호 배타적이며 동시에 상호 경쟁적인 주장들과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 만들기 전제로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결국 우리에게 정의로운 삶을 요구한다.

(4) 생명 중심의 생태학과 공동선

교회의 평화에 대한 관심은 예수께서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집약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통치되는 영역을 의미하며,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사 하시며 결국에는 역사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하나님 나라 개념 안에 들어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개인의 안녕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자유와 정의를 망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온전한 평화의 상태를 말한다.

13) Bob E. Patterson, *Reinhold Niebuhr* (Waco: Word, 1977), pp.128-130.

14) D. B. Robertson ed., *Love and Justice*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57), pp.27-29.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성숙한 변혁운동이 하나님의 나라운동의 핵심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삼위일체적 존재하심과 역사 안에서의 주권적 통치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간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범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 되신 하나님이 사랑과 교제 안에서 하나이심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간의 차이와 각기 다른 다양성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평화관이 지향하는 목표이자 추구하는 방법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개념은 신앙인들에게 평화 만들기의 당위성을 부여하며, 그것의 범위와 영역, 또 바람직한 참여 태도를 제시해준다. 물론 이는 매우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다수가 비그리스도인인 사회에 직접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때 사회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것이 '공동선(common good)'¹⁵⁾의 개념이다. 이 개념의 배경에는 인간의 삶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되시는 “하나님께로 정하여져 있다(ordained to God)”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각각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즉 신적인 초월성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선인 공동선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반응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조화 이룸'을 목표로 한다.

공동선은 개인의 본질적인 인권을 소중히 할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보다도 이웃, 사회, 그리고 세상을 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공동선은 사람들 개개인이 자아실현과 완성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회적 선들을 포함한다. 공동선은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 권리의 우선성을 지지하면서도, 더욱 큰 전체의 일부분으로서의 우리 사회의 본질적 중요성을 깨닫도록 해 주며, 우리 자신을 위한 선보다 더 큰 목적들을 추구하여야 할 우리의 운명을 기억하도록 한다. 사실 사회는 개인적 선들, 이익들, 그리고 인격적인 선택들이 단순히 합쳐진 집합체를 넘어선다. 공동선을 신학적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회와 생태계에서 부분적인 것들은 완전한 - 사회의 공동선, 우주, 그리고 신적인 선 - 하나님의 더욱 큰 선을 위해 작용한다.¹⁶⁾

공동선의 개념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인간중심주의와 포스트모던적 소비문화의 경향성인 철저한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하나의 돌파구를 제공하여 준다.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공동선이란 모든 피조세계를 위한 선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선이란 단지 인간생명만이 아닌 모든 생명의 선함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생태학적인 의미를 갖는다. 공동선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공동선'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 다른 종(species), 나아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말함으로써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을 극복하도록 이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공동선의 개념으로부터 기독교적 평화관의 초월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15) 일반적으로 공동선의 개념은 로마 가톨릭 윤리의 유산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이며, 그 이후 자연법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계보가 20세기에는 자크 마르탱(Jacques Maritain)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교회의 유산으로서의 공동선이라는 이유와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이전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이들의 사상은 로마 가톨릭의 전유물만이 아닌 전체 교회와 신앙인들의 소중한 자산이라 이유에서 '공동선'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David A. Krueger, *Keeping Faith at Work: The Christian in the Workplac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p.65.

16) 위의 책, pp.66-68.

교회과제로서의 평화 만들기와 통일준비

평화 만들기의 여정에 동기와 내용, 목표를 제공하는 이러한 신학적 주제들은 평화 만들기의 여정에 있어서 교회공동체의 공동의 관심사이자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향점들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노력들을 한국교회에 요청한다.

(1) 통일공동체의 비전 제시를 위한 노력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는 우리 사회가 통일공동체의 전형이 되도록 개혁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개혁 작업의 우선적 과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언약공동체 의식이 뿌리내리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남한 인구의 1/4에 달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통일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이 삶으로 실현될 수 있는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의 의미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종교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¹⁷⁾ 하나님 중심적인 언약 공동체란 그것을 의식하고 있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자손들이며, 모든 사람의 존재 가치가 무한히 귀중하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이러한 언약공동체는 기독교인들이나 남한 사람들처럼 어느 한 구성원들만의 이익을 담보하지 않는다. 모든 구성원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주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모색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통일공동체는 국수주의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교회가 선포하고 교육해야 할 통일공동체의 비전은 동북아의 평화를 담보하면서 세계공동체를 품는 역사적, 민족적 비전과 함께, 통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존엄성이 반영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공동체의 비전은 민족복음화를 향한 선교적 열정과 실천과 동반되어야 할 비전이다.

(2) 사회문화적인 이질감 극복을 위한 노력

두 번째로 교회는 사회문화적인 이질감의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 ‘폐쇄적 주체문화’로 상징되는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이질감 극복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단 사회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북한 바로알기’와 같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교회의 주일학교 커리큘럼에도 북한을 바로 알고, 복음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회는 남북한 문화 교류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점이 있다. 북한이 ‘폐쇄적 주체문화’로 상징된다면, 남한은 ‘상업적인 대중문화’가 주류 문화로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교회는 이러한 남한 사회의 문화 개혁을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남한 사회와 교회는 ‘상품으로서의 가치’와 ‘구매력’이 만물의 척도가 되어버린 소비주의 문화에 오염되어 있다고 할

17) 물론 우리에게 ‘민족복음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이제 이루어 가야 할 통일은 기독교인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75%에 달하는 비기독교인들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원되는 신앙적, 신학적 용어들은 배타적(차별적) 의미보다 포괄적 의미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배타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신앙적, 신학적 용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도적이며 차별적인 섬김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할 것이다.

수 있다. 북한 사람들이 이러한 상업 문화에 편입된다는 것은 커다란 도덕적 수치가 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북한 사람들의 입장은 남한 사회와 교회에 각성을 촉구하는 예언자적인 관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문화도 개혁의 대상이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이며, 남한 사회는 남한 사회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자유와 평등이 정의롭게 조화되는 문화로 개혁될 때 북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통일공동체로 초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의 교회는 문화변혁 작업에 목회적인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게토(ghetto)화 되어 있는 교회가 보다 사회와 소통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한 시민운동에 적극 앞장서도록 독려해야 한다. 특히 통일을 위하여 다양한 사역을 하는 NGO나 정부 기관 등 여러 단체들과 유기적 연대 및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교회는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건전하면서도 포용적인 문화를 남한 사회에 정착시킴으로써 통일공동체를 향한 희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정치경제적 통일을 위한 노력

세 번째로 교회는 정치경제적인 통일을 위하여 요청되는 정의로운 사회체제 창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의 정의로운 조화를 담보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법체계의 확립과 시행에 관심해야한다. 또한 세계시장경제체제의 성숙과 더불어 요구되는 공정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위한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투명한 기업문화의 확립, 무한경쟁의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는 직장 속에서 공동체적 윤리와 연대성 확립에 교회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들을 교회와는 상관없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유기하는 셈이다. 교회는 남한 사회의 정치경제체제가 더욱 정의로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교인들이 건전한 ‘기독교시민’이 될 수 있는 데에 관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기독교민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교회는 정의로운 조세제도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청결한 양심을 갖춘 기독교민들을 양육해야 한다. 이러한 신앙인들을 향한 교육이 우선되어 열매를 거둘 때에야 비로소 교회는 과감하게 사회에 “나를 따르라”는 예언자적인 선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세대소통과 통합을 위한 노력

통일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문화적인 이슈임에 틀림없다. 이런 모든 주제가 어우러져 나타나는 것이 세대 간의 이슈이다. 2017년 KBS에서 실시한 국민 통일의식조사¹⁸⁾에서 이같은 세대 간의 통일 인식의 차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집권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특별히 ‘5·60대 이상’은 90%에 육박하는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북한에 대한 반감이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20대 역시 반감이 높았다(86.4%)는 것이다. 40대는 87.5%를 나타냈다. 한편,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연령대가 높을수록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60대 이상은 32.0%였던 반면, 20대는 16.7%에 불과했다. 또한 20대의 경우, “통일이 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11.1%로 40대(9.1%)보다 높았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8) KBS 『2017 국민 통일의식조사』 자료집, pp. 164-175.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한 비율(56.2%)이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되면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이 있었던 2013년 조사¹⁹⁾에 따르면 통일이 주는 최대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쟁위협 해소, 한반도 경제성장, 군비 감소로 복지혜택 증가, 통일한국의 국제위상 강화의 항목 가운데, 전체적으로 ‘전쟁 위협 해소’(30.8%)를 꼽았다. ‘한반도 경제성장’(28.6%), ‘통일 한국의 국제위상 강화’(23.4%)가 그 뒤를 이었다.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30대와 60대가 ‘전쟁 위협 해소’를 가장 좋은 점으로 응답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는, ‘한반도 경제성장’을 꼽았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분단과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있고, 산업화 시대에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세대가 있으며, 처음부터 이념과 무관하게 살아간 세대도 있다. 또한 북한정권을 적대시하며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대신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목소리를 높이는 세대도 있고, 정치적 타결과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는 세대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할 세대가 있고, 통일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지만 통일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세대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대 별로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피며, 통일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가지게 된 까닭을 살피는 것은 통일준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세대별로 나타나는 상이한 대북관과 통일에 대한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후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살피며, 통일에 대해 세대들 사이에 상당한 의식 차이를 보이는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실천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한민족의 통일은 민족의 숙원이자 국가적 과제이다. 정치 경제적으로 보면, 통일은 전쟁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며, 동북아 지역을 넘어 정치 경제적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민족적으로 보면,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할 뿐 아니라 민족 문화가 중흥할 수 있는 기회이자, 혈통적 순수성을 보존해온 단일민족국가를 성취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다면 통일의 시기는 더욱 요원하다. 진보와 보수가 공동의 목표인 통일을 놓고 팽팽하게 대결하기만 하면 통일은 하나의 정치적인 명분으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 경제적인 계층이나 학벌,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다를 터이지만, 우리가 확인한 것은 세대와 연령별로 통일을 접근하는 방식 또한 다르다는 것이다. 모든 세대가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지만, ‘산업화 세대’에 해당하는 60대와 50대 후반, ‘민주화 세대’에 해당하는 40대와 50대 중반, ‘정보화 세대’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의 생각이 달랐으며, 무엇보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이 공동의 과제라는 데는 동의했지만, 민족적 숙원이자 당위로서 받아들이는 세대가 있었던 반면, 경제적인 필요와 국가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세대도 있었다. 과거 한국 사회의 지배와 저항구도의 중심축이 되었던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탈근대적인 사조들이 이입되는 시대에, 이제 민족이나 통일에 대한 담론들은 젊은 세대의 일상사와는 동떨어진 거대 담론으로 치부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통일 의식이 희박해지는 데에는, 사회적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가 현실적인 중압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한때 민족의 숙원 내지는 당위적인 과제였던 통일이 연령이 낮을수록 점차 인기 없는 주제가 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2·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다.²⁰⁾ 대북관이나 정부에 대한 입장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

19) KBS 『2013 국민 통일 의식조사』 자료집, p.28.

이 진보적인 이념에 경도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회 2·30대가 처한 심각한 현실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읽어내야 한다. 오늘날 이들은 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돌파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계발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2·30대가 생애주기 전체를 탈냉전 시대에서 살아온 최초의 세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젊은 세대는 향후 탈냉전, 탈민족, 탈근대 세대를 예견하게 한다는 것이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지고, 통일에 대한 당위가 약해진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제적인 동인이나 현실적인 이익이 없이는, 세대가 내려갈수록 통일에 대한 전망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통일이 요원해진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성향이 표출되는 방식이 비슷하다하여 통일의를 공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크게 범주화할 수 있었다. 진보와 보수가 격렬하게 대립했지만, 동일한 이념 지형 안에서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새로운 갈등과 대립의 축을 의식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인 경험이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가 이제 곧 주류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 못지않게, 세대 간의 소통과 협력을 모색하는 통일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맺는 말

통일은 백지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힘의 공백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매우 역동적인 성격과 과제를 갖는다. 통일준비는 역사적, 문화적, 정치경제적 차원에서의 준비를 요청한다. 남과 북 중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관점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통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경험은 평화통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는다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였다. 물론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황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함도 사실이다. 이러한 복합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는 평화통일에 대한 신앙적 차원에서 준비를 모색하여야 한다. 신앙적인 차원이 요청된다는 것은 평화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자기중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세를 포기함을 의미한다. 또한 평화통일이란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용서, 상대방의 현실적 존재에 대한 받아들임과 미래지향적인 소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준비는 구체적이어야 함도 확인하였다. 신앙이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삶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삶으로서의 신앙, 신앙으로서의 삶이 책임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신학적 토대로부터 도전받는다.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책임영역이 우선은 동료 신앙인들로부터 시작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모든 피조세계에 미치는 것이다. 북의 자매와 형제는 바로 나의 자매와 형제이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통일공동체를 지금, 여기에서 준비하기로 결단해야 한다. 이때 우리 남한 교회의 신앙인들에게 부과되는 과제는 우리 사회개혁 작업의 핵심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한 책임이다. 남과 북 중 어느

20) 물론, 최근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대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인식도 일정부분 변화를 보일 것이라 여겨진다. 향후 이를 반영한 논의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통일공동체가 지켜야 할 통합체제에 근접한 체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은 크며 통일공동체에 알맞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개혁 작업의 주체로서의 교회의 역할모색과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게 요구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